



데이터로 살려본 응답하라 1988

꿈꾸는 데이터 디자이너 3기
TEAM DATA-TELLING

왜 하필 응팔?

연예

이럴 바엔 차라리 '어남류'가 나왔다

[리뷰] '남편찾기'에 빠져 캐릭터도 스토리도 붕괴된 <응팔>

우동균(sksehdbs)

16.01.16 16:43 최종업데이트 16.01.16 16:43



<응답하라 1988>(이하 <응팔>)의 남편찾기가 마지막에서야 그 윤곽을 제대로 갖췄다. 저돌적인 고백과 키스신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미래의 덕선을 연기하는 이미연이 남편을 두고 '공인'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 파일럿이 공인일리는 없으니, 박둑기사로 유명한 최택(박보검 분)이 남편일 매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남편이 누구냐는 문제를 놓고 수차례 저울질을 해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던 남편찾기의 결론이 드러나고 있지만, 원성이 사그라들기는 커녕 증폭됐다. 문제는 택이가 남편이라는 사실 자체에 있지 않다. 남편은 누가 되든지 사실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응팔>이 남편찾기에 반전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결국은 개연성마저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캐릭터의 붕괴



'응답하라 1988' 어남류만 있나... '어남택'일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6가지

온라인뉴스팀 민경아

입력: 2016년 01월 12일 08:00:01

글자크기 + -

댓글 댓글

'응답하라 1988' 해리 남편이 '어남택'일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6가지

'어남류'만 설득력 있는 것은 아니다.

tvN 금토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마지막 두 편을 남겨둔 가운데 덕선 남편의 정체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미래의 모습에서 김주혁으로 등장하는 덕선의 남편을 두고 '어남류(어차피 남편은 류준열)'와 '어남택(어차피 남편은 택)'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뜨거운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어남류' 지지자들에 맞선 '어남택'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덕선의 남편이 최택인 결정적인 이유 6가지를 들어보자.

▶ 김주혁의 차림새는 최택을 가리킨다



왜 하필 응팔?

높은 시청률만큼 많은 논란들...

그 논란들을 데이터로 파헤쳐보자!

분석 목표

그렇게 선정한 2가지 핵심 질문 :

1. 가족드라마 vs 로맨스드라마 – 응팔은 어떤 드라마?
2. 어남류 vs 어남택 – 덕선은 누구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나?

가설 및 분석 방법

1. 가족드라마 vs 로맨스드라마

가설

아이들의 연애 이야기가 많다면 로맨스,
가족들의 가족 이야기가 많다면
가족드라마가 아닐까?



누가 많이 등장하는지,
누구와 누구의 교류가 많은지를
살펴보면 그 드라마의 성격이 보일 것

분석 방법

에피소드별로 각 등장 인물의

1. 등장 횟수
2. 다른 인물과의 관계

를 분석해서
네트워크 시각화!

가설 및 분석 방법

2. 어남류 vs 어남택

가설

어떻게 하면 사랑이 이루어질까?



함께 있던 **순간**이 많으면?
함께 나눈 **대화**가 많으면?
의미심장한 **행동**이 많으면?

분석 방법

시계열 그래프로 흐름을 파악해보자!

함께 있던 **순간** ▷ 씬 그래프
함께 나눈 **대화** ▷ 케미 그래프
의미심장한 **행동** ▷ 행동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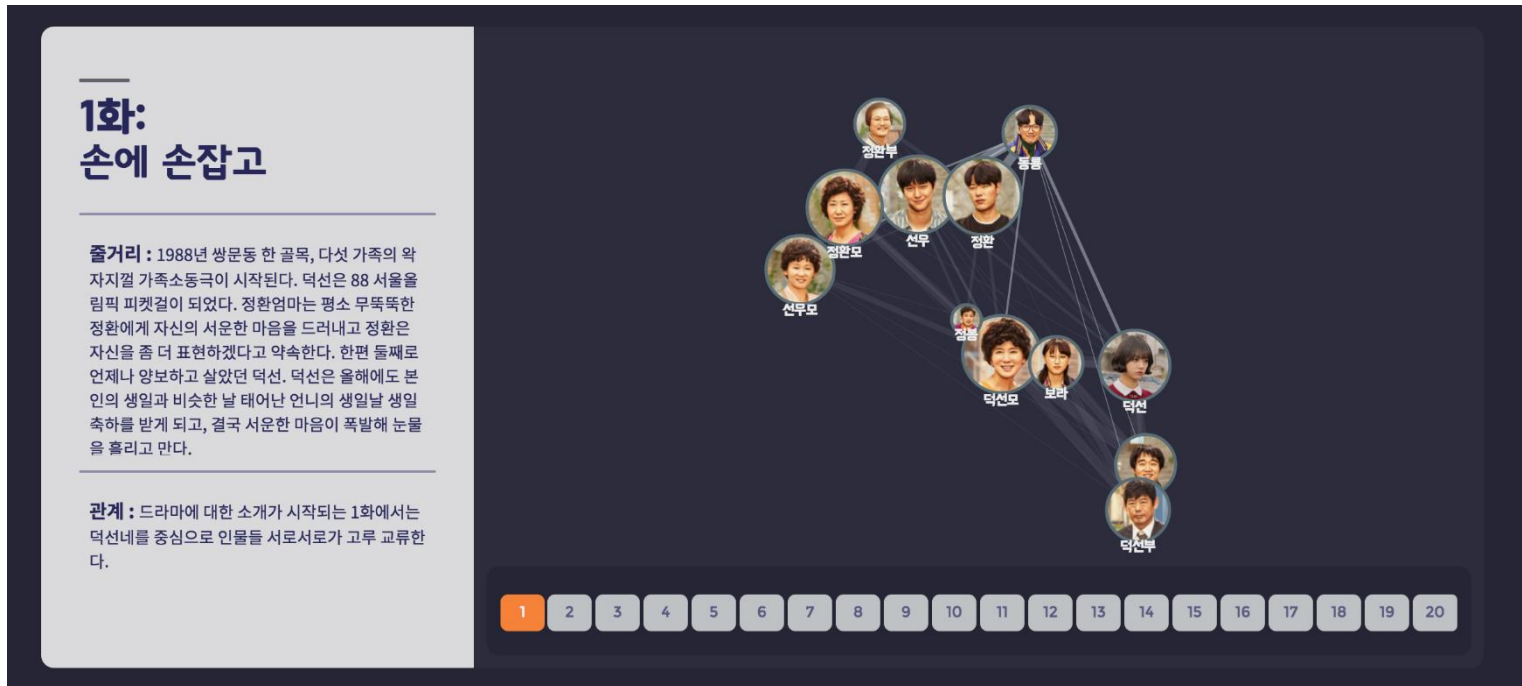
번외편) 커플별로 사랑을 키워간 곳
▷ 장소 그래프

가족드라마 vs 로맨스드라마 ?

분석 내용 – 가족드라마 vs 로맨스드라마

네트워크 분석 (Network Analysis) 개괄 :

원의 크기는 등장 횟수,
선의 굵기는 등장인물간 대화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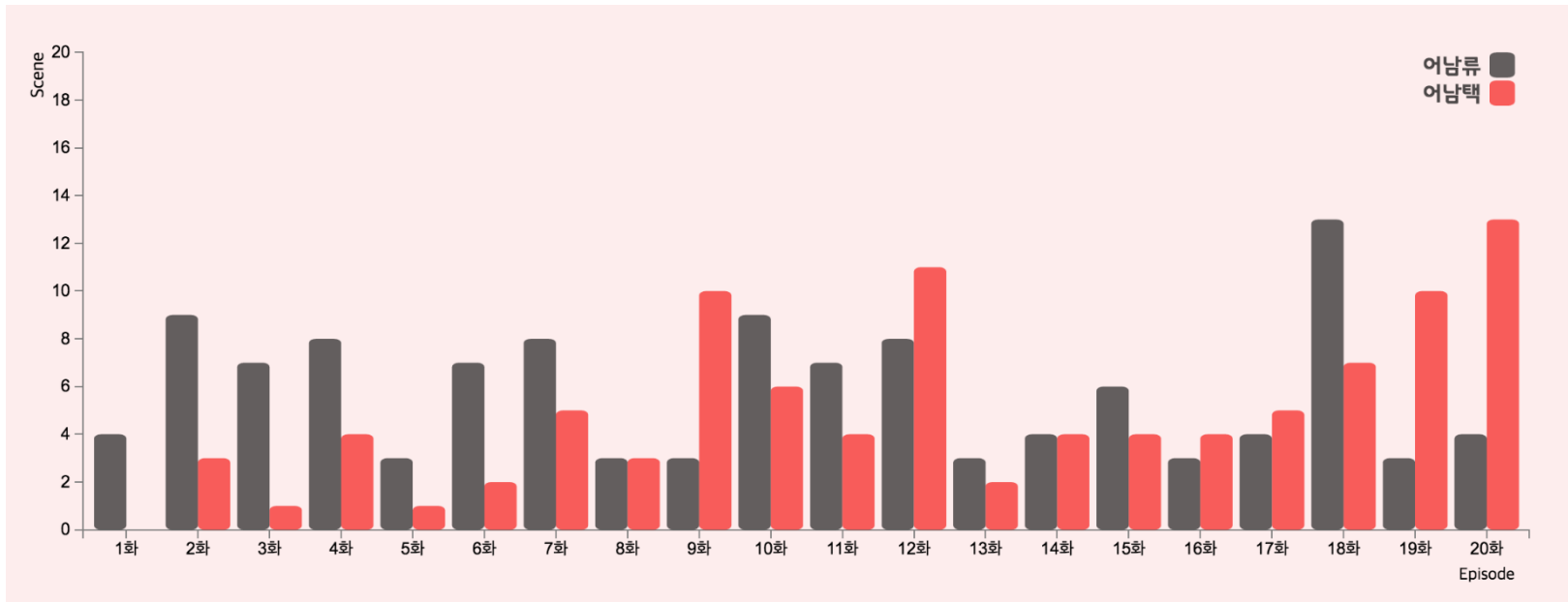


어남류 vs 어남택 ?

분석 내용 – 어남류 vs 어남택

씬 그래프 개괄 :

함께 대화를 나눴으면 한 씬에 같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덕선-정환, 덕선-택이가 같이 등장한 씬 횟수를 카운팅.



[Page link](#)

분석 내용 - 어남류 vs 어남택

썸 그래프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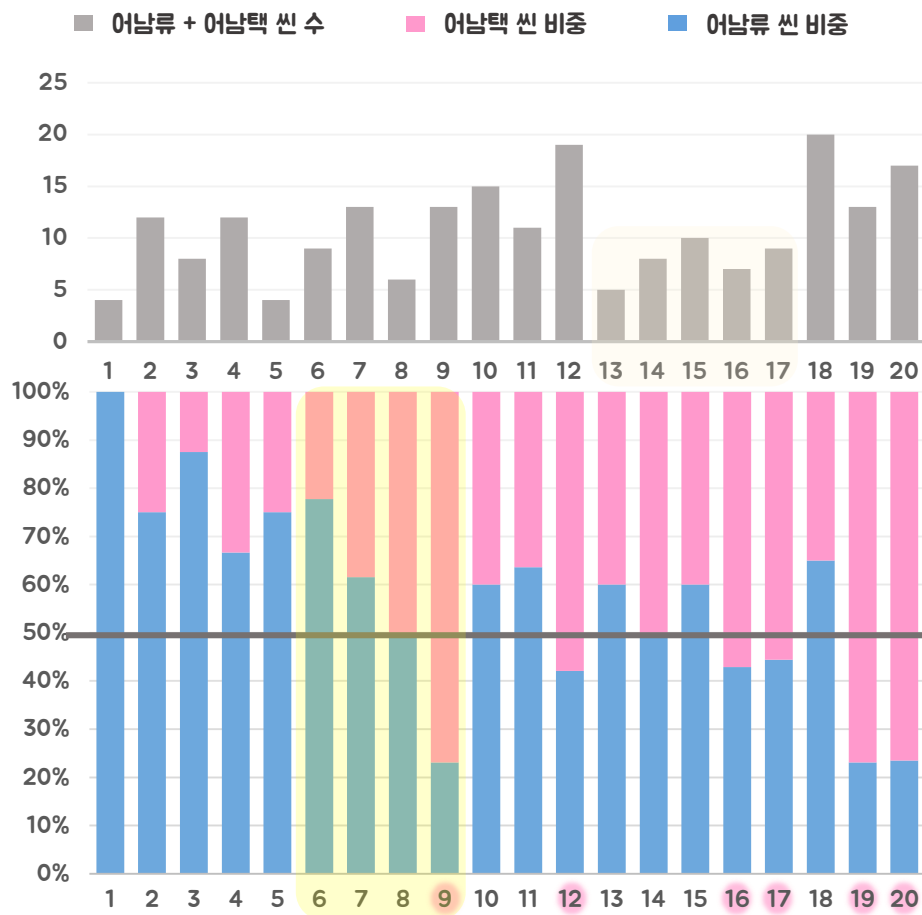
함께 있던 순간은 극 전반에 걸쳐 큰 추세 없이 분포,
13~17회에는 전반적으로 다소 감소폭.

초반에는 정환의 우세,
6~9화에 택이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
그 이후에는 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등장.

그러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정환의 우위.

정환, 택의 썸 수는 각각 116, 99.

또한 택이와 함께한 순간이 더 많이 나왔던 때는
20화 중 6화 뿐 ($6/20 = 30\%$),
남편 확정된 19~20화 제외시 $4/18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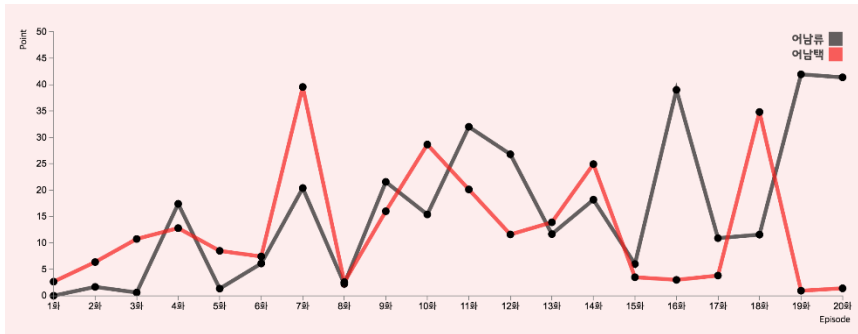
분석 내용 – 어남류 vs 어남택

케미 그래프 개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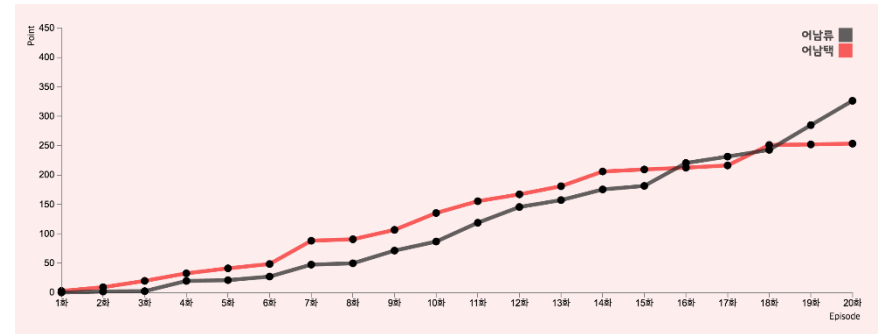
케미 = 대화 횟수 X 가중치
↓
대사 라인별 카운팅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가중치 높게 부여
(4인대화보다 2인대화일 때 서로가 더 가까워질 수 있으므로)

케미 시계열 그래프



케미 누적 시계열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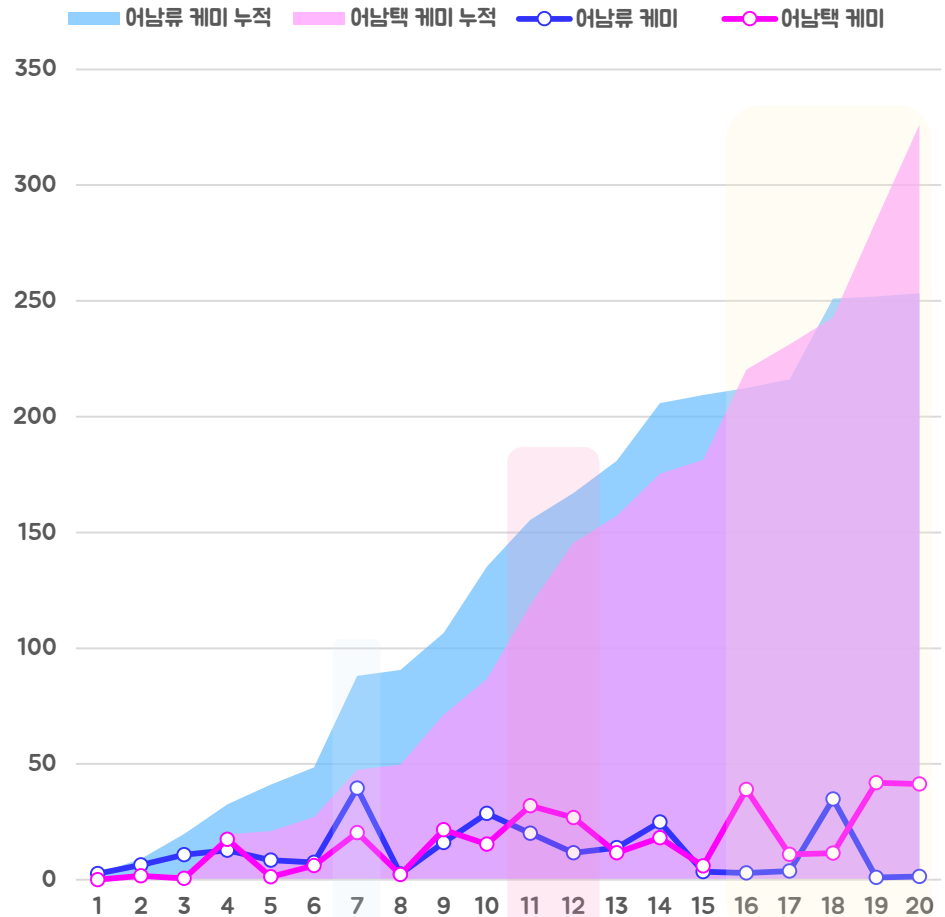
분석 내용 – 어남류 vs 어남택

케미 그래프 분석 (절대수치) :

케미의 총합으로 보면, 정환이 계속적으로 우세.
덕선과 영화보기로 약속을 잡았다 취소하는
16화에서야 택이가 정환을 추월.

덕선이 부르자 강남으로 바로 달려간 7화에서
정환의 선두 굳히기가 뚜렷해졌음.

덕선이 자기 방에 오래 있게 하려고
이것저것 갖다 달라고 하는 11화,
치한을 만난 덕선 곁에 있어주는 12화에서
택이가 정환을 조금 더 따라잡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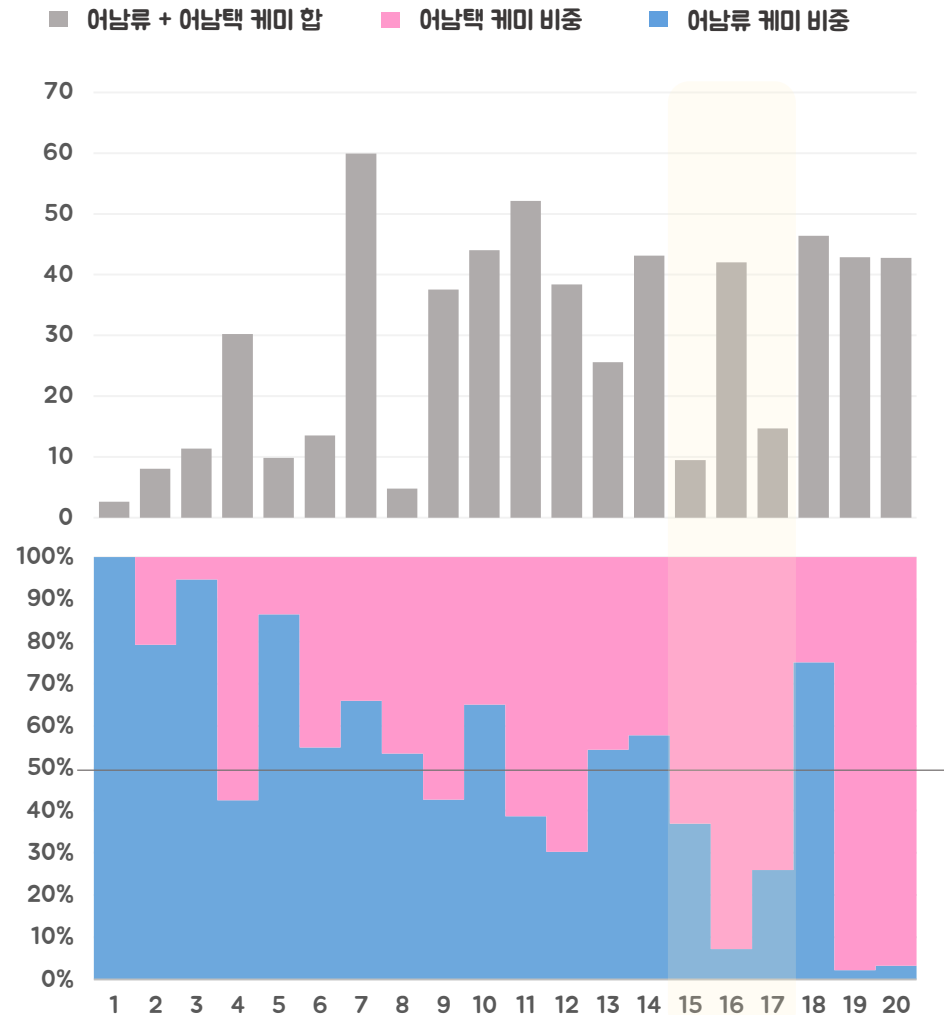


분석 내용 - 어남류 vs 어남택

케미 그래프 분석 (상대수치) :

각 화에서 각자 얼마나 케미가 있었는지를 보면,
초반에는 정환, 갈수록 택이와의 케미가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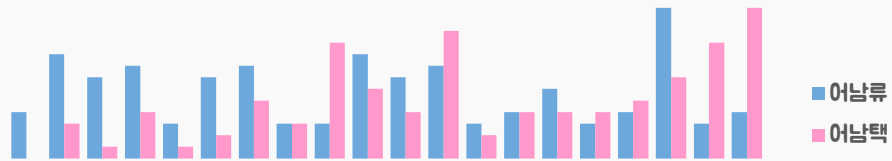
다만 택이와 케미가 특히 높아지는 15~17화에는
16화를 제외하고 덕선과의 연애이야기 자체가
드라마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은 편.



분석 내용 – 어남류 vs 어남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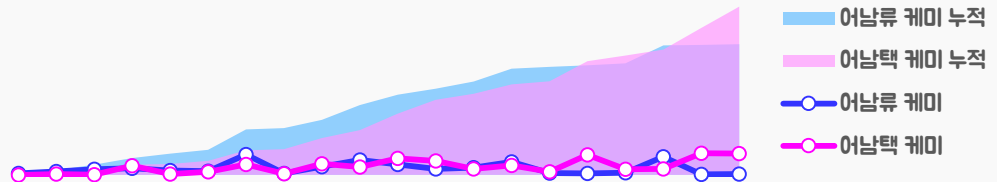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결론 :

함께한 순간?
씬 그래프 : 정환 승!



But 같이 있기만 해서 되나?
서로 말을 해야!

함께한 대화?
데미 그래프 : 정환 승!
but 택이도 갈수록 열일



분석 내용 – 어남류 vs 어남택

BUT 연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바라보는 눈빛,
나를 향해 지어주는 미소,
달콤한 키스
같은 행동 !

분석 내용 – 어남류 vs 어남택

행동 그래프 개괄 :

- 3명의 행동을 상대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 기준으로 A, B, C 등급으로 나눈 후 가중합산
- 이 때 행동의 개수는 컷별로 계산

A

쌍방향적

상대에게 내 행동이 전달됨

덕선에게 우산 씌워주는 정환
덕선을 안는 택이

B

쌍방향? 일방향?

상대에게 전달됐는지 애매함

춤추는 덕선을 보고 웃는 정환
친구들에게 덕선을 좋아한다 말하는 택이

C

일방향적

혼자 상대를 생각함

이문세 콘서트표를 보고 생각에 잠긴 정환
덕선과 전화를 끊고 눈물 흘리는 택이

▶ **행동시그널 = $A*2 + B*1.5 + C*1$**

분석 내용 – 어남류 vs 어남택

행동 그래프 분석 :

전체적으로 택이가 정환보다 우위 (640 > 460),
하지만 택이가 남편으로 확정된 19-20화 제외시
정환이 택이보다 우위 (457 > 366)

어남택

10화 : 가출한 동룡 데리러 간 바다에서 함께 놀

17화 : 택이와 덕선 잠결에 키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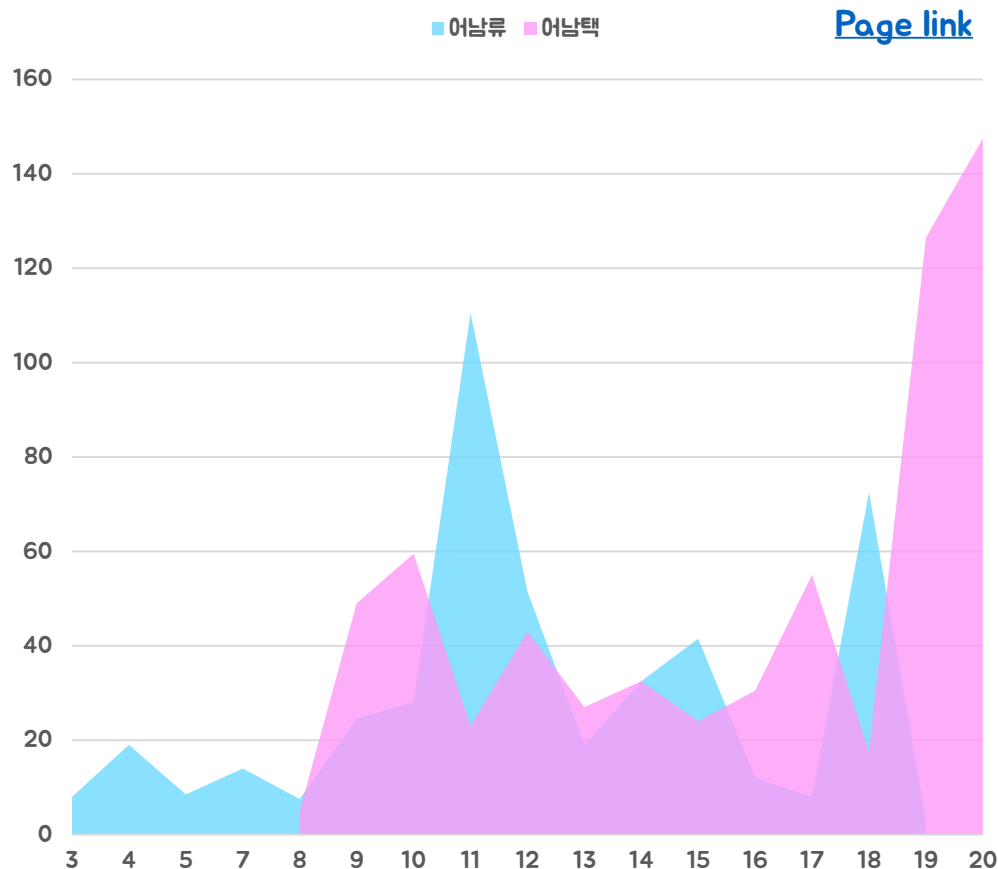
19화 : 택이와 덕선 중국에서 키스함

어남류

11화 : 이문세 콘서트 함께 가자고 정환에게 앵깁

15화 : 덕선을 뒤에서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정환

18화 : 이승환 콘서트날, 한 발 늦은 정환



* 참고사항) 6화의 행동시그널이 착오로 누락되었으나, 전체 결과에 주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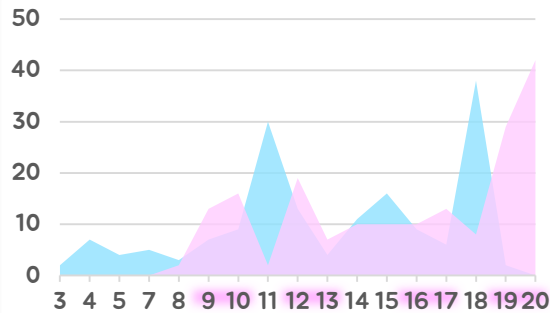
분석 내용 – 어남류 vs 어남택

정환 & 택이 행동 그래프 상세 분석 (절대수치) :

정환과 택이는 얼마나, 어떻게 덕선에게 다가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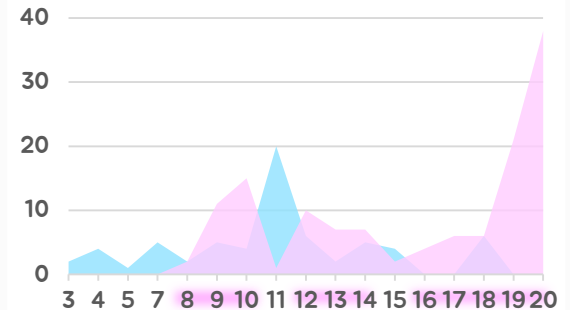
전체적으로는
택이가 더 적극적
A + B + C (단순 합산)

	택이	정환
행동 수	181	166
회 수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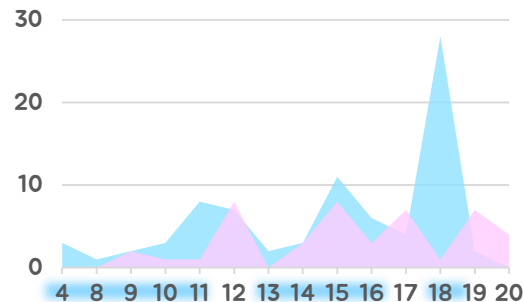
특히 택이는 덕선에게
실제로 자주 다가감
A (쌍방향
적)

	택이	정환
행동 수	130	66
회 수	1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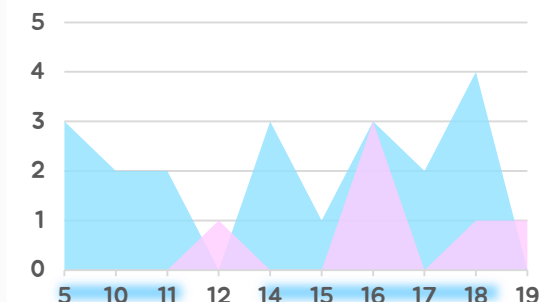
정환은
덕선을 몰래 바라봄
B (쌍방향? 일방향?)

	택이	정환
행동 수	45	80
회 수	6	10



정환은
덕선을 자주 생각함
C (일방향적)

	택이	정환
행동 수	6	20
회 수	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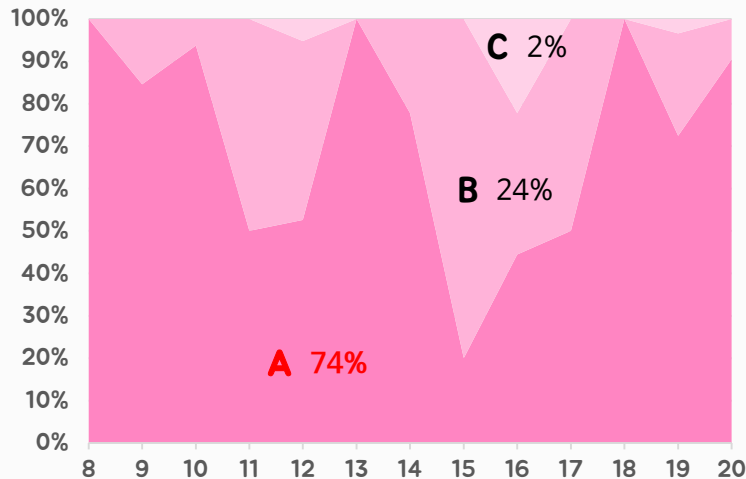
▶ 행동파 택이, 생각하는 정환

분석 내용 – 어남류 vs 어남택

정환 & 택이 행동 그래프 상세 분석 (상대수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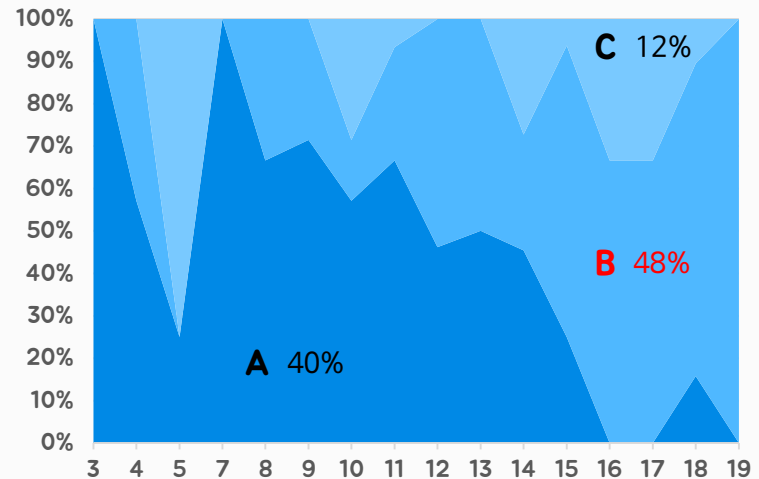
정환과 택이는 어떻게 덕선에게 다가갔나?

택이



택이는 15~17화 정환이 덕선을 좋아한다는 걸 발견했을 때를 제외하고 계속 덕선에게 실제로 다가감. 11~12화에서는 덕선을 멀리서 바라보는 씬도 비교적 자주 등장.

정환



정환은 10화 택이가 덕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공개했을 때부터 갈수록 덕선에게 잘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만 보거나 덕선을 혼자 그림

▶ 행동파 택이, 생각하는 정환

분석 내용 – 어남류 vs 어남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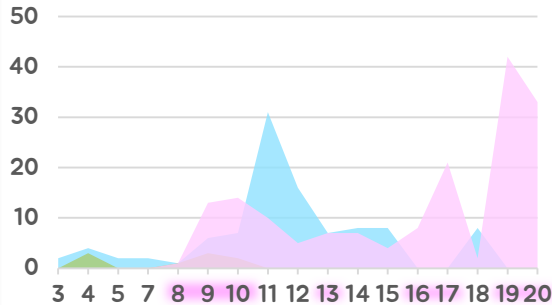
덕선 행동 그래프 상세 분석 (절대수치) :

덕선은 얼마나, 어떻게 정환과 택이에게 다가갔나?

택이에게 집중적,
정환에게 꾸준히

A + B + C (단순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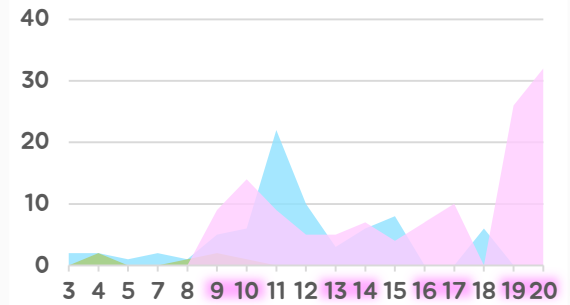
	택이	정환
행동 수	167	102
회 수	8	11



19~20화 제외하고
비슷비슷하게!

A (쌍방향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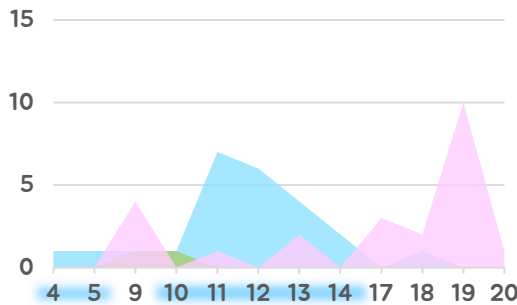
	택이	정환
행동 수	128	74
회 수	8	9



19~20화 제외하고
정환에게 압도적

B (쌍방향? 일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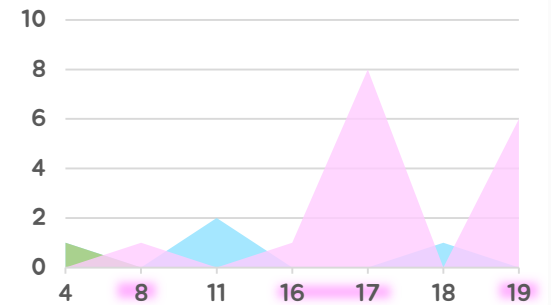
	택이	정환
행동 수	23	24
회 수	5	7



정환보다 택이를
많이 많이 생각함

C (일방향적)

	택이	정환
행동 수	16	4
회 수	4	3



▶ 정환을 많이 바라보다, 택이를 많이 생각함

분석 내용 – 어남류 vs 어남택

덕선 행동 시그널 B 상세 분석 :

“소개팅 하지마”로 설레기 시작해, 정봉이 입은 분홍셔츠를 보고 오해하며 맘을 접었다

24 > 23 : 정환 승

10화 “소개팅 하지마”라는 말 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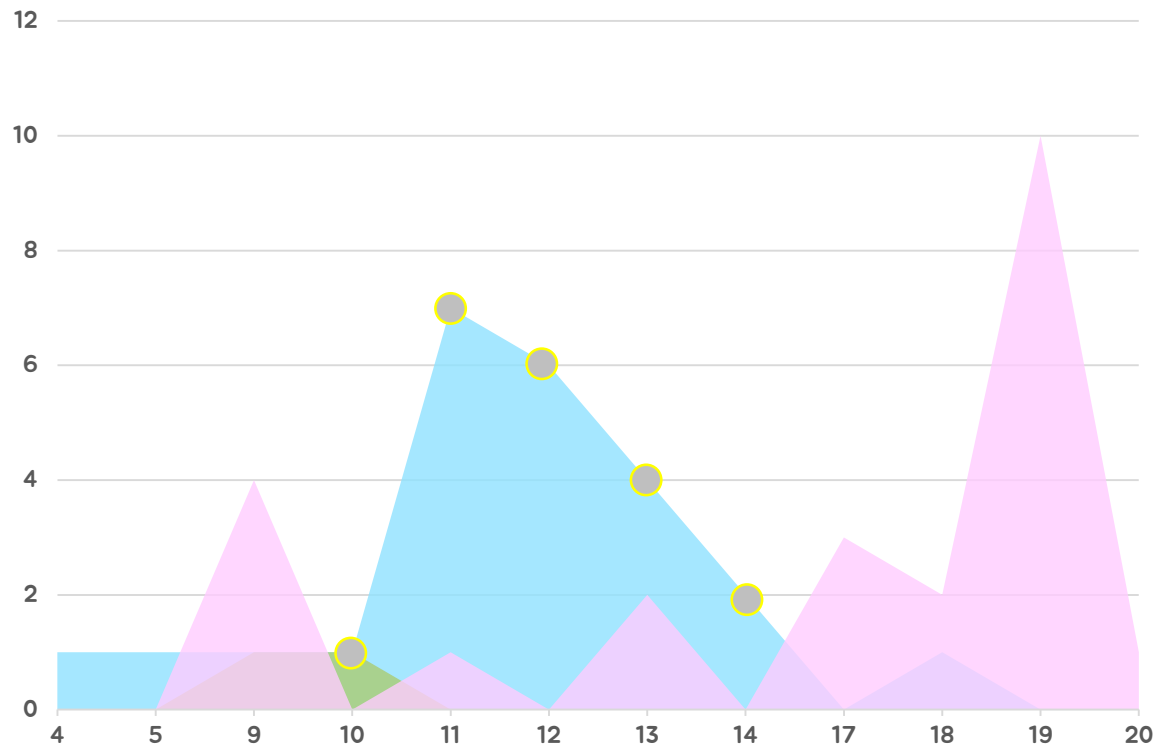
11화 정환 앞에서 계속 쑥쓰러워함
정환이 건네준 속옷 보고 창피해함

12화 정환 보기 전엔 늘 꽃단장

13화 정환과 같이 가려고 일찍 학교 감

14화 이문세 콘서트장, 발목 뻐 척!

정환에게 선물한 분홍색 셔츠를
정봉에게 줘버렸다고 오해함



분석 내용 – 어남류 vs 어남택

덕선 행동 시그널 C 상세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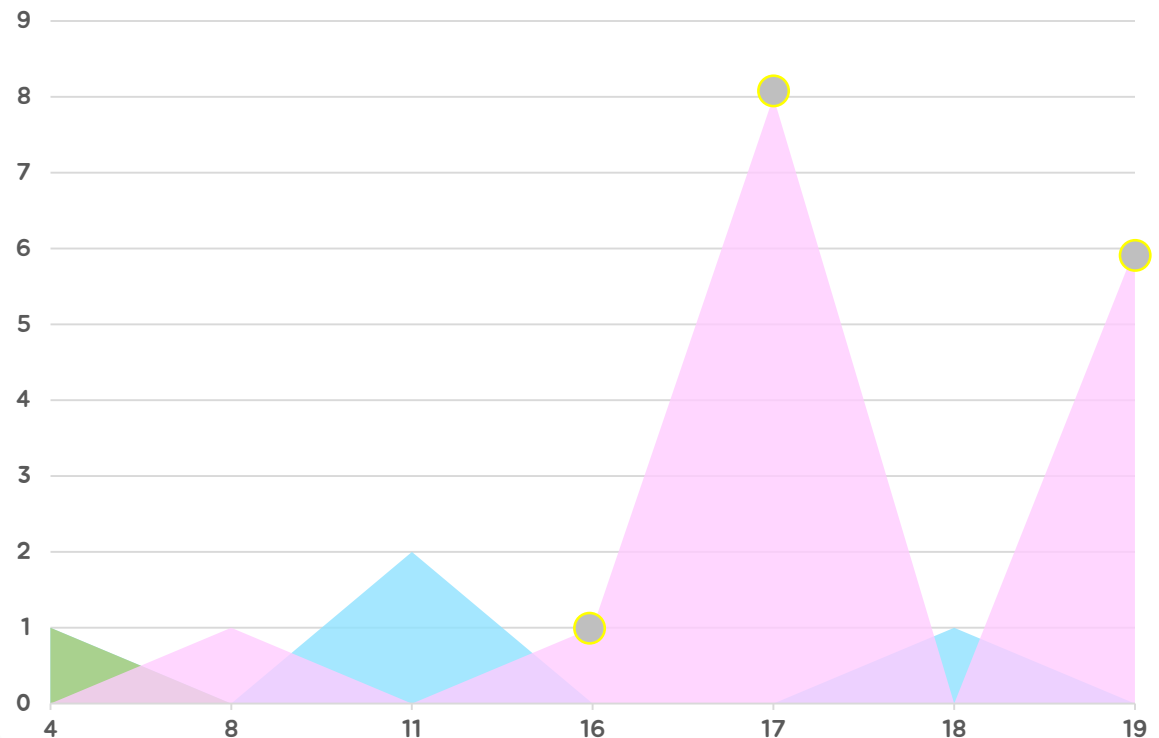
택이와의 토요일 영화 약속이 취소되면서 택이를 부쩍 신경쓰기 시작한다

16 > 4 : 택이 승

16화 토요일에 영화를 같이 못 본다는
택이의 전화를 받고 서운해함

17화 약속 취소에 계속해서 서운해함
택이가 덕선을 운동장에서
번쩍 들어올려 안은 장면을 회상함

19화 택이와의 호텔에서의 키스 후
좋아하며 잠을 못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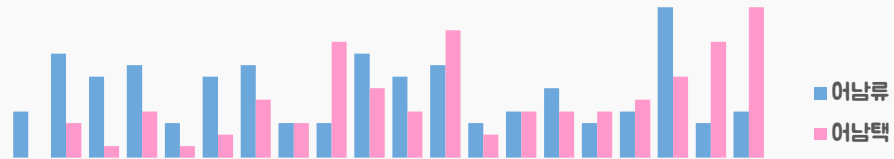


분석 내용 – 어남류 vs 어남택

최종 결론 :

함께한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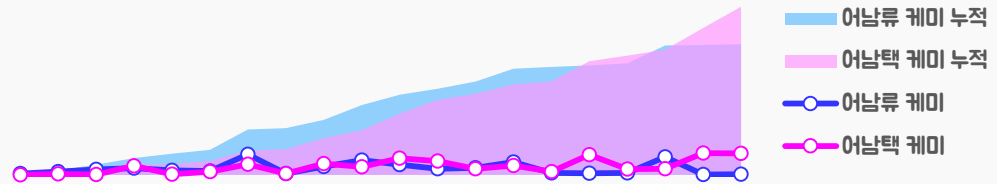
썸 그래프 : 정환 승!



함께한 대화?

케미 그래프 : 정환 승!

but 택이도 갈수록 열일



행동?

행동 그래프 : 택이 승!



분석 내용 – 어남류 vs 어남택

최종 결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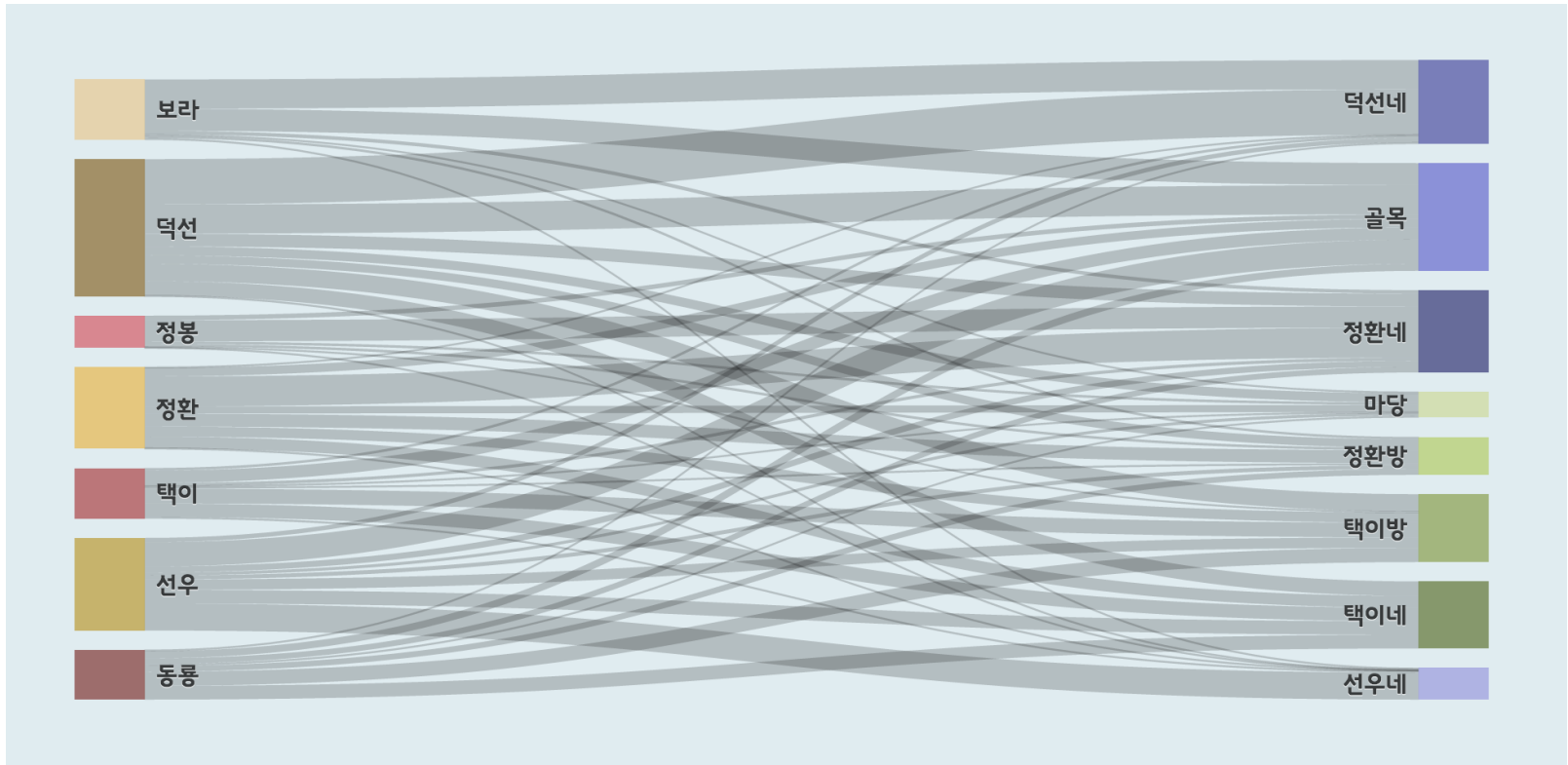
1. 응팔에서는 함께한 순간, 함께 나눈 대화의 양보다는
상대가 알아차릴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얼마나 했느냐가
사랑을 쟁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2. 정환이가 덕선이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정환이에게 더 많이 감정이입을 하기 쉽다

어남류 vs 어남택 ?
번외편

분석 내용 – 어남류 vs 어남택

장소 그래프 개괄 :

캐릭터별로 가장 자주 등장했던 곳을 Sankey Diagram에 매핑.



분석 내용 – 어남류 vs 어남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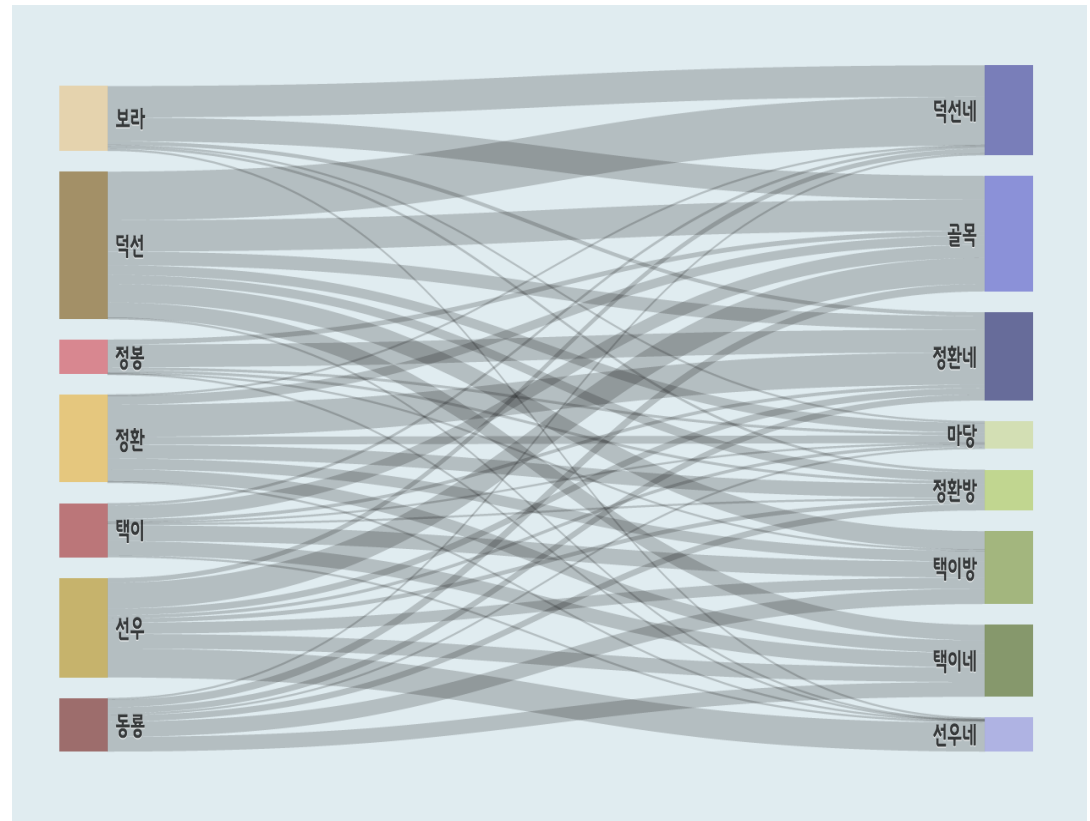
장소 그래프 분석 :

덕선이는 택이방에 자주 감.
무려 택이보다 많이 방문할 정도.
둘의 로맨스가 주로 이루어진 장소.

한편 덕선은 정환네나 정환방에는
택이방이나 택이네에 가는 것보다 적게 감.

선우와 보라는 비밀연애 때문에
골목에서 자주 등장함.

정봉은 집에서 등장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만든 사람들

TEAM DATA-TELLING

이장호, 차민경, 허소임, 오다슬, 김형철, 박성환

<http://reply1988.data-telling.me>

data.tellingzo@gmail.com